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조선의 향토오락(朝鮮の郷土娛樂)』을 통해 본 평안남도 지역의 전통놀이 상황에 관한 연구*

박태규 _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일제의 전통놀이 조사/진흥 배경과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조선의 향토오락(朝鮮の郷土娛樂)』
- III. 평안남도 지역의 전통놀이 상황
- IV. 나오며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첫째,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전통놀이 조사/진흥 배경과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의 향토오락』에 관해 재고하고, 둘째, 『조선의 향토오락』을 바탕으로 평안남도 지역의 전통놀이 상황에 관해 고찰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붕괴되어 가는 조선의 농촌을 살린다는 미명하에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그것의 일환으로 전통놀이 진흥정책을 시행하였는데, 그에 앞서 조선의 전통놀이 조사 작업 또한 진행하였다. 1941년 조선총독부 조사자료집 중 한권으로 출간된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의 향토오락』은 이상과 같은 전통놀이 조사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의 향토오락』을 바탕으로 평안남도의 전통놀이 상황을 분석한 결과 파악

* 본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7072508).

할 수 있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1) 당시 가장 많은 놀이를 즐긴 것은 어린이>성인 남성>성인 여성의 순이었다. (2) 성인 남녀의 놀이를 살핀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의 놀이가 수적으로 매우 적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놀이에는 놀이와 노동의 경계에 있는 노동형 놀이 또한 행해지고 있었다. (3) 놀이의 주체로서 어린이나 성인 남녀 등과는 별도로 유림이 따로 표기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전통사회의 신분 등에 관한 시각이 잔존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전통놀이를 주제로 한 기초연구이면서 동시에 광의의 지역연구로서 해당 지역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평안남도, 전통놀이,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조선의 향토오락(朝鮮の郷土娛樂)

.....

I . 들어가며

한반도에서 놀이에 관한 기록은 고대로부터 확인되고 있다. 『삼국지(三國志)』 「위서동이전(魏書東夷傳)」의 부여(夫餘) 조에는 ‘정월에 지내는 제천행사는 국중대회로 날마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 이름을 영고(迎鼓)라 하였다’¹⁾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노래하고 춤추는 행위’란 곧 ‘놀이’를 의미한다. 놀이는 인간의 삶 속에서 개개인의 정서와 감정을 표출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구성원이 모인 집단 및 공동체의 희노애락과 염원을 표상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에 관한 연구는 인간의 정서와 삶에 관한 연구이면서 동시에 사회 공동체의 연구라 말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놀이, 그 중에서도 특히 근대적인 개념에서의 전

1) 국사편찬위원회, 『중국정사조선전역주』 1, 국사편찬위원회, 1987, p. 213.

통놀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전통놀이란 일명 ‘향토놀이’나 혹은 ‘민속놀이’라 일컬어지는 것으로 각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놀이를 의미한다. 장구한 세월 동안 동일한 지역에서 전승되고 또한 행해진 만큼 전통놀이는 각 지역에 안착해 남녀노소 모든 계층이 일상으로 즐길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놀이는 근대라고 하는 격변의 시기에도 여전히 지역과 밀착해 사람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기능할 수 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화기에서 일제 강점기를 포괄하는 근대시기에는 일본을 포함한 외국의 여러 나라로부터 새로운 문물과 풍습, 가치관이 유입됨에 따라 놀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한 상황을 대변하듯 당시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부민관에서 공연을, 단성사에서 영화를 관람하며 불야성을 이룬 경성의 네온사인 밑을 거닐다가 서울에 판스홀을 허가해 달라’²⁾는 의견이 게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여전히 각각의 지역을 중심으로 전통놀이가 행해지고 있었고, 더욱이 근대적인 평가와 의미 부여에 따라 변모를 거듭한 전통놀이 또한 생겨나게 되었다.

한편, 근대시기의 전통놀이 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수걸(1984, 1999), 김예림(2005), 강재철(2011), 김난주 외(2011), 공제욱(2012), 서종원(2012, 2015), 윤광봉(2012), 김재호(2015), 김영미(2012, 2015a, 2015b), 남도희(2016) 등의 연구가 그것인데, 이들 연구를 주제별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대략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근대 놀이의 특징과 범주에 관한 것, 둘째, 근대 전통놀이의 변모 양상에 관한 것, 셋째, 의정부와 울산 등 경기와 경남의 전통놀이를 중심으로 한 것, 넷째, 아동 놀이 및 개별 전통

2) 김난주 외, 「일제강점기 향토오락 진흥정책과 민속놀이의 전개 양상」, 『민속놀이의 문화정책과 변모양상』, 단국대학교 출판부, 2011. p. 14.

놀이와 관한 것, 다섯째, 일제강점기의 전통놀이 진흥책에 관한 것 등이다. 이상의 것들은 전통놀이 중 근대에 들어와 사라지거나 혹은 기능이 변한 것에 대한 고찰은 물론 새롭게 형성된 당대의 놀이문화와 일제강점기의 놀이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폭넓은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북쪽 지역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총독부의 전통놀이 조사/진흥 배경과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조선의 향토오락』에 관해 재고하고, 북쪽 지역 중 특히 평안남도를 중심으로 전통놀이 상황에 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조선의 향토오락(朝鮮의 鄕土娛樂)』에 주목한 것은 본서가 당시 행해지던 전통놀이의 종목 및 분포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자료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³⁾ 또한 본서에 실린 전국 13개 지역 중, 평양으로 대변되는 평안남도는 당시 수도권에 뒤지지 않을 만큼 새로운 문물이 빠르게 유입된 곳으로 북쪽 지역의 문화 및 교육의 중심지로서 기능하였기 때문이다.

Ⅱ . 일제의 전통놀이 조사/진흥 배경과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조선의 향토오락 (朝鮮의 鄕土娛樂)』

일제강점기, 일본은 식민지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 일반인

3) 『조선의 향토오락』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박전열, 「『朝鮮의 鄕土娛樂』에 대하여」, 『한국민속놀이의 종합적연구』 22, 한국민속학회, 1992, p. 32~39가 있다. 본 연구는 무라야마 지준의 원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저자가 그것의 번역과정을 실례를 들어 소개하고 또한 번역의 한계 등을 논한 것으로 번역서는 물론 일본어 원서를 이해하고 살피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들의 생활과 건강, 취미, 민속, 놀이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통제를 이어나갔다. 특히 개인의 건강이나 혹은 지역의 놀이에 있어서는 ‘식민지 민중의 신체=노동력/군사력’⁴⁾이라고 하는 기초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나갔다. 그 중 하나가 전통놀이 진흥정책으로, 일제는 1930년대부터 조선 농촌진흥운동의 일환으로 이른바 향토오락이라고도 하는 전통놀이 진흥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조선 농촌진흥운동이란 1932년 7월부터 1940년 12월까지 전개된 조선총독부 주도의 관제농민운동으로,⁵⁾ 당시 일제는 피폐해가는 농촌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농촌진흥운동 계획을 수립해 농촌사회를 통제해 나갔다.

알려진 바와 같이 식민지 조선의 농촌진흥운동은 일본 및 세계 경제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성장세를 보이던 세계 경제는 1920년대 말로 접어들면서 하락세로 돌아서 1929년 10월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대공황을 맞게 된다. 미국에서 시작된 주가 하락은 세계 경제를 강타해 당시 독일은 노동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일자리를 잃는 등 전 세계가 경제난에 휩싸이게 된다. 물론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히려 미국에 앞서 1923년 발생한 관동 대지진의 처리를 위해 발행한 대량의 어음이 불량채권화 되는 등, 이른바 쇼와(昭和)금융공황에 빠져있었다. 게다가 미국을 주요 무역국으로 하고 있던 생사(生絲) 수출까지 어려워지면서 일본 경제는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고 만다.

쇼와금융공황 및 세계 경제대공황과 맞물려 일본 경제가 도탄에 빠지자 그 폐해는 고스란히 식민지 조선에 전달되었다. 일제는 1920년부터 조선을 식량공급지로 삼기 위해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해 다량의 미곡을 일본으로 가져갔다. 이에 조선의 농가들은 쌀 중심의 농업 형태를 유지

4) 김난주 외, 「일제강점기 향토오락 진흥정책과 민속놀이의 전개 양상」, 『민속놀이의 문화정책과 변모양상』, 단국대학교 출판부, 2011, p. 17.

5) 지수걸, 「일제의 군국주의파시즘과 조선농촌진흥운동」, 『역사비평』(5월), 1995, p. 16.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것이 1920년대 말로 접어들면서 쌀의 과잉공급 현상이 일자 일본은 쌀 및 벼의 수입제한칙령(1928.3)을 발표함⁶⁾으로 조선으로부터의 쌀 수입을 규제하였다. 그리고 중국에는 산미증식계획의 중지(1934.6)를 선언하기에 이르는데⁷⁾, 이상과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보릿고개’나 혹은 ‘야반도주’라는 말이 일상어⁸⁾가 될 만큼 소작민의 몰락 및 농촌 경제의 파탄은 가속화되었다.

농촌 경제가 극도로 피폐해지자 당시 조선에서는 소작쟁의의 증가와 함께 적색농조운동(赤色農組運動)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일례로 소작쟁의의 경우 1926년 17건이었던 것에 반해 1933년에는 66건으로 급증하였다.⁹⁾ 그러자 조선총독부는 농촌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진흥운동과 동시에 진행된 것이 전통놀이 진흥정책이었다. 일례로 당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大邱]

農村振興운동의擴充과함께農山村民의娛樂機關을充實하야所謂愛郷心の概念을養成하고靑少年의都市憧憬心を解消하는것은가장重要한施設로道當局에서는이方面에對한調査研究를하기로되여今般農村에在한娛樂關으로男子에게는擲柶脚戲女子에게는遊山 儒生에게는 詩會또小兒農靑少年에게는 豊年舞等を各郡에通牒 狀況調査를하야이를獎勵하기로되였다.¹⁰⁾

6) 「米와 正租 輸入制限令」, 『동아일보』 1928년 3월 8일 기사 참조.

7) 「産米増殖中止의 經濟的影響別無」, 『동아일보』 1934년 6월 1일 기사 참조.

8) 지수걸, 「일제의 군국주의파시즘과 조선농촌진흥운동」, 『역사비평』 5월, 역사비평사, 1995, p. 18.

9) 지수걸, 「1932~35년간의 조선농촌진흥운동」, 『한국사연구』 46, 한국사연구회, 1984, p. 121.

10) 서종원, 『한국의 근대 놀이문화』, 채륜, 2015, p. 49, 재인용.

위의 인용은 『매일신보』(1936년 4월 16일)의 기사 내용으로, 농촌진흥운동의 확충과 함께 당국에서는 오락기관을 재정비하고 또한 남녀, 그리고 청소년에게 각각 척사(옷놀이)나 혹은 풍년무 등과 같은 종목을 장려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일제의 농촌진흥정책에 맞추어 오락 내지는 놀이 또한 통제해 각희나 시회와 같은 이른바 전통놀이를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일제는 전통놀이 진흥정책을 펼치기에 앞서 조선 전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통놀이에 대한 조사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일제가 조선의 전통놀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였음은 당시의 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二百餘種을調査蒐集

地方特殊性에適應한것選擇 民衆娛樂으로指導

향토오락의 보호조장을 위하여 총독부사회교육과에서는 1년반이나 걸쳐 전조선 방방곡곡의 민중오락을 조사수집중이던바 근일방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이조사내용을 근거토대로하여 적극적으로 오락지도조사를 하게되었다. (중략)동사회교육과에서는 이것을 이제분류하여가지고 그것을계절을따라 필요되는것과 또해변이거나 산촌평원지방의 특수성에의하여 적당한것을골라 일반에게 알으키고 동시에이차세한조사는 분류와설명을부쳐서 세상에내보내기로되었는데 이사회적 향토평토경제적 필요한 재료와 민중오락의지도리론은 수립되게되었다. 11)

이상은 1938년 『동아일보』에 「향토오락보호조장」(7월 28일)이라는 제하에 실린 기사의 일부이다. 이것에 의하면 조선총독부는 향토오락의 보호조장을 위하여 사회교육과에서 1년 반에 걸쳐 조선 전역의 놀이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실시, 마무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결과 200여 종에

11) 『동아일보』 1938년 7월 28일.

달하는 향토오락을 수집하게 되었고, 그 중 선별작업을 통해 민중오락으로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어 당시 조사한 200여 종의 놀이 중 전국적으로 분포도가 높은 놀이 13종을 발표하였는데, 옷놀이, 달마지, 다리밟기, 꽃놀이, 그네뛰기, 줄다리기, 씨름, 농악(農樂), 지신밟기, 풍년기, 널뛰기, 연날리기, 얼네공(장치기)의 순이었다. 또한 기사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총독부 사회교육과 당국자의 말이 실려 있다.

사람은 소나말같이 일만하게되지아니했다. 건실한 오락이없이는 건실한 활동을 할 수가없다. 이오락으로하여 피로를잇고 또 호존풍속과 습관을가지게 되며 향토의친목을 도할 수가 있다. 앞으로 이조사를 토대로 하여서 과거에무시된 이오락방편에 지도조장과 보호의 방책을 수립하려 한다. 일반 사회에서도 이점을 잘이해하여 함께 보호조장의결과를 내게 하기를 바란다. ¹²⁾

위에 의하면 오락은 피로를 풀고 좋은 풍속과 습관을 지니게 하며 각 지역의 친목을 도모할 수가 있다. 따라서 총독부에서는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주목받지 못했던 오락을 지도하는 한편 보호 정책을 수립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건실한 오락없이는 건실한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한 점이다. 왜냐하면 ‘건실한 오락=건실한 활동’은, ‘건강한 신체=산업/군사력’의 다른 표현으로, ‘건실한 오락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만들고 황국신민으로서의 건실한 활동을 하자’라는 의미를 표출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 농촌 진흥운동은 경제적 파탄에 따른 소작쟁의 및 적색농조운동 등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수립된 것으로, 그와 맥을 같이하는 전통놀이 진흥정책

12) 『동아일보』 1938년 7월 28일.

또한 같은 범주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통놀이 진흥 정책을 위해 진행된 조사 작업 또한 동일한 목적 하에 출발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인용문에서 언급한 방대한 조사 결과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의 향토오락』이 출간되었다는 점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의 향토오락』은 당시 조선총독부에 근무하던 무라야마 지준이 조선 전역의 전통놀이를 지역별로 나누어 그것의 종류와 시기, 대상 등을 기록한 기초 자료집이다. 조선총독부 조사자료집 제47권으로 1941년 출간되었다. 무라야마 지준은 일제 강점기, 조선의 부락제, 귀신, 무속, 점복, 풍수, 안택, 기우 등의 민간신앙은 물론 사회학적 입장에서 조선인 및 조선사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인물이다.¹³⁾ 그가 당시 조선으로 건너오게 된 경위는 명확하지 않으나 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 철학과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후 조선에 건너왔다고 한다. 조선에서는 부인 및 두 자녀와 함께 오늘날의 을지로인 황금정(黃金町)에 거주하며 조선총독부의 촉탁으로 근무하였는데, 공무원의 경우 이동이 잦은 관계로 정식 직원이 아닌 촉탁의 신분을 선택했다고 한다.¹⁴⁾

『조선의 향토오락』에서는 전국을 경기도(경성 포함),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제주도 포함), 경상남북도, 황해도, 강원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의 13개 도(道)로 나눈 후 다시 각 도별로 세분화하여 각 지방에서 행해지던 전통놀이를 수록하였다. 무라야마 지준이 조선의 전통놀이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한 것은 1936년 전후로 보인다. 왜냐하면 『조선의 향토오락』의 첫머리에 ‘이 책은 1936년 각 도지사에게 조회하여 전국 각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향토오락을 조사, 정리한 자료이다.’¹⁵⁾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13) 김희영,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인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 9.

14) 朝倉敏生, 「村山智順の謎」, 『民博通信』 79, 国立民族学博物館, 1997, p. 109.

15) 村山智順 편, 박전열 역, 『朝鮮의 郷土娛樂』, 집문당, 1992, p. 27.

그러나 그의 조사 이전부터 농촌진흥운동에 따른 지역적 관심 및 전통놀이에 관한 여론이 높아져 있었다. 그와 같은 상황을 반증하는 것이 당시 잡지에 실린 기사들인데, 농촌진흥운동이 전개된 1932년 이후 잡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들이 게재되었다.

〈표 1〉 1932~1936년 전통놀이 관련 잡지 게재 글

	저자	제목	매체
1	박로아	快壯! 快絶! 정월노리 줄다리기	『別乾坤』 (1932.2)
2	윤백남 외	조선의 정월노리-편싸흙 외	『別乾坤』 (1932.2)
3	윤백남 외	정월노리二大戰-石戰 外	『擘星』 (1932.2)
4	김재길	조선인형극 꼭두각시	『東光』 (1932.11)
5		그리운우리靑洲대보름날의 다리봄기	『三千里』 (1932.12)
6	송석하	五廣大小考	『朝鮮民俗』 (1933.1)
7	정연변	晉州五광대-탈노름	『朝鮮民俗』 (1933.1)
8		그리운우리靑洲濟州島의燃燈祭	『三千里』 (1933.2)
9		그리운우리靑洲-횃불노리	『三千里』 (1933.2)
10	김영제	朝鮮古代 冬節運動 장치기	『中央』 (1934.1)
11	황준	民俗과 傳説로 본 朝鮮의 年中(歲中, 五月, 六月)行事	『中央』 (1934.2~12)
12	김대준	劇本 배뱅이굿(平安南道民俗劇)	『한글』 (1934.4~5)
13	송석하	處容舞, 儺禮, 山臺劇의 關係를 論함	『震檀學報』 (1935.4)
14	송석하	朝鮮各道民俗概觀(황해도/함경도/평안도)	『新東亞』 (1935.5~7)
15	백화랑	없어진노리 장치기/풍쟁삼(豊爭)/孔子帝國노리	『朝光』 (1936.4~1937.4)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민속놀이 관련 자료집 잡지편』, 민속원, 2011, p. 14~116에서 작성.

위의 표를 참고로 할 때, 당시에는 정월 등의 세시놀이를 비롯해 전문인들에 의한 탈놀이 및 궁중악무인 처용무, 나례 산대극, 굿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분야에 걸친 글들이 연이어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고자들 또한 다양해 윤백남, 송석하, 조운제 등, 당대의 대표적인 예술가, 민속학자, 국문학자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거의 1년에 걸쳐 연재된 「民俗과 傳説로 본 朝鮮의 年中行事」로, 정월에서 12월에 걸친 연중행사 및 그에 따른 풍속이나 놀이 등이 월별로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일례로 6월의 경우 15일인 유두일(流頭日)의 유두면(流頭麵)과 수단(水團), 건단(乾團)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가 하면, 삼복과 삼계탕, 약수 먹기, 그리고 사빙 등에 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 이렇듯 당시에는 각 지방의 풍속 및 전통놀이에 관한 글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전통놀이를 둘러싼 하나의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무라야마 지준의 전통놀이 조사는 이상과 같은 여론 및 담론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하겠다.

『조선의 향토오락』에서 주의해야만 하는 것은 본서가 무라야마 지준이 현장을 방문하는 직접조사 및 분석에 의한 것이 아닌 행정력에 의한 간접조사 방식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이다. 『조선의 향토오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조사는 각 지방의 보통학교에 의뢰하여 수집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¹⁶⁾

상기에 의하면 『조선의 향토오락』은 무라야마 지준이 당시 각 지방의 보통학교에 의뢰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간행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까닭에 본서는 ‘자료의 나열일 뿐 저자 개인의 견

16) 村山智順 편, 박전열 역(1992), p. 27.

해를 찾아볼 수 없다¹⁷⁾는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일제의 조선 농촌진흥운동 및 전통놀이 장려책에 따른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본서에는 총 6,400여 종에 달하는 놀이명과 1,300여 종에 달하는 놀이의 설명이 기술¹⁸⁾되어 있는 등, 오늘날 전통놀이 문화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Ⅲ. 평안남도 지역의 전통놀이 상황

『조선의 향토오락』에 기록된 북쪽 지역은 총 5개 도(道)로, 각 도별로 세분화된 지방과 놀이의 수는 다음과 같다.¹⁹⁾

〈표 2〉 5개 도에 수록된 놀이 현황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지방	17	16	18	16	13
놀이	85	66	62	48	63

*村山智順 편, 박전열 역, 『朝鮮의 郷土娛樂』, 집문당, 1992, p. 317~501에서 작성.

위와 같이 본서에는 황해도 17개, 평안남도 16개, 평안북도 18개, 함경남도 16개, 함경북도 13개의 총 80개 지방에서 행해지던 놀이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중 가장 많은 놀이의 수가 기록된 것은 황해도로, 본래 이곳은 〈봉산탈춤〉, 〈강령탈춤〉, 〈은율탈춤〉은 물론 〈몽금포타령〉과 〈금산포도라지타령〉 등의 민속 예술이 발달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한편,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조선의 향토오락』에 기록된 평안남

17) 김희영,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인식』, 민속원, 2014, p. 100.

18) 村山智順 편, 박전열 역(1992), p. 30.

19) 각 지방별 중복되는 놀이는 제외하였다.

도 16개 지방의 전통놀이 현황을 살펴보면 이하와 같다.²⁰⁾

〈표 3〉 평안남도 지역 전통놀이 현황

	지 방	전체 기록수	어린이	소년 소녀	男	女	일반	유림	마을 전체	기타
평 안 남 도	평양	22	4	5	4	2	2	3	0	2
	진남포	8	2	0	1	2	3	0	0	0
	대동	30	5	8	9	3	3	1	0	1
	순천	21	4	3	5	3	2	1	0	3
	맹산	17	5	0	4	3	4	0	0	1
	양덕	10	3	0	1	3	2	1	0	0
	성천	11	2	0	2	2	2	0	0	3
	강동	23	14	1	1	2	2	0	0	2
	중화	31	10	7	5	2	3	1	0	3
	용강	23	7	1	2	2	6	2	0	3
	강서	23	4	6	1	2	4	1	0	5
	평원	26	12	2	5	3	2	0	0	2
	안주	15	6	2	2	2	2	0	0	0
	개천	19	11	0	1	2	2	1	0	2
	덕천	8	3	1	2	2	0	0	0	0
	영원	15	6	0	3	2	3	1	0	0

*村山智順 편, 박전열 역, 『朝鮮의 郷土娛樂』, 집문당, 1992, p. 407~428에서 작성.

이상은 평안남도 각 지방에서 행해지는 놀이의 주체를 어린이, 소년/소녀, 남자, 여자, 일반, 유림, 마을 전체, 기타로 나눈 후, 해당 놀이의 숫자를 파악해 적어놓은 것이다. 『조선의 향토오락』에는 놀이의 이름과 함께 그것이 주로 행해지는 시기, 그리고 해당 놀이를 주로 행하고 즐기는 주체가 기록되어 있다. 마을 전체란 예를 들어 산신제처럼 모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이며, 기타는 놀이의 주체가 특수하게 표기된 경우이다. 일례로 평양 지방의 경우 ‘농악’의 주체가 농부로, 용강 지방의 경우 ‘투전’의 놀이 주체가 ‘하류층 남자’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개천의 경우 ‘콩던지기’의 주체가 ‘불량 남녀 청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평원의 경

20) 각 지방별 중복되는 놀이는 제외하였다.

우 '풍어놀이'의 주체가 '어부'라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성천의 경우 '공동 누에기르기'의 주체가 농가로 기록되어 있다.²¹⁾

이하에서는 위의 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놀이 상황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어린이, 유림, 기타의 놀이 상황

숫자에 의한 단순한 접근이기는 하지만, 정리된 자료를 통해 볼 때 당시 가장 많은 종류의 놀이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어린이였다. 실제로 각 지방의 어린이용 놀이는 위의 표에 보이는 바, 각 도별 놀이의 20~50%를 차지해 소년/소녀, 성인 남녀의 그것을 합친 수보다도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놀이의 개념이 어린이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 평안남도 지역에서 어린이가 즐겼던 놀이 중 지역 별로 분포도가 높은 것은 연날리기와 팽이치기, 솜바꼭질, 썰매타기, 풀겨루기, 진치기, 버들피리, 공기, 고누 등이었다. 그리고 각시놀이, 감자구이, 말타기, 열발뛰기, 조조잡기, 참봉잡기(소경놀이), 돌치기(머리방), 달맞이, 꼬리잡기(옥떼기), 소꿉놀이(세간살이), 돌차기 등과 같은 놀이 또한 행해지고 있었다. 풀겨루기란 『조선의 향토 오락』에 의하면 봄과 여름에 여러 종류의 풀을 모은 후 하나하나 비교하여 진귀한 풀을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 놀이라고 한다.²²⁾ 진치기는 두 편으로 나뉘어 각각 진을 치고, 전초병을 보내어 적을 사로잡아와 서로의 진에 잡혀있는 포로의 수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놀이이다. 고누는 두 사람이 말판에 말을 벌여놓고 서로 많이 따먹거나 상대의 집을 차

21) 기타에는 이 외에도 어부, 노인, 노파, 장인,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중류층 이하, 하류층 남자, 불량 남녀 청년, 중류 이상 가정, 서당 학생, 학부모 등이 포함된다.

22) 村山智順 편, 박전열 역(1992), p. 408.

지하기를 겨루는 놀이로,²³⁾ 『조선의 향토오락』에는 고누놀이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우물고누, 녀줄고누, 아홉줄고누, 짚고누의 말판 그림이 실려 있다. 원래 고누는 팽이치기나 그네와 마찬가지로 역사가 매우 오래된 놀이이다. 1989~1990년 사이, 황해도 봉천군 원산리에서는 청자 가마터와 함께 참고누판이 발견된 바 있다. 그런데 본 가마터는 10세기 고려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어, 고누가 최소 고려 시대 이전부터 행해지던 놀이였음을 알 수 있다. 참봉놀이는 가위바위보로 한 사람을 참봉으로 정하여 눈을 가리고 한가운데에 세워 놓고 다른 사람을 붙잡게 하는 놀이이다.²⁴⁾ 평양 지방에는 참봉놀이로, 대동 지방에는 소경놀이로 기록되어 있다. 감자구이는 『조선의 향토오락』에 여럿이 모래밭에 구덩이를 파고 감자를 구워 먹으며 노는 것²⁵⁾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놀이라기보다는 간식을 먹는 행위로 보이는 감자구이까지, 당시 평안남도 지역에는 비교적 다양하면서도 유서 깊은 놀이들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림으로 기록된 놀이에는 백일장, 시회, 화전놀이, 종경도놀이, 복놀이 등이 있다. 이 중, 화전놀이와 종경도놀이, 복놀이는 성인 남성들의 놀이로도 기록된 반면, 백일장과 시회는 유림만의 놀이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의 향토오락』에 의하면 시회는 유림들이 모여 5율(律) 혹은 7률의 시를 짓고 우열을 가리는 놀이로, 음식과 술을 함께 즐긴다²⁶⁾고 되어 있다. 유림이란 선비의 무리나 모임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이 즐긴 놀이는 수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림을 따로 분류해 놓은 것은 전통사회의 신분제도가 혹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시각이 잔존했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2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웅진출판, 1991, p. 366.

24) 村山智順 편, 박전열 역(1992), p. 408.

25) 村山智順 편, 박전열 역(1992), p. 416.

26) 村山智順 편, 박전열 역(1992), p. 410.

마지막으로 기타에 속하는 것으로는 콩던지기, 공동 누에기르기(농가), 풍어놀이(어부) 등이 있다. 먼저 생소한 콩던지기에 관해 『조선의 향토오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각각 1,2,3,X(X는 4점이라는 뜻) 등의 숫자를 새긴 작은 콩 네 개를 던져서 그 표면에 나타난 수에 의해서 승패를 결정한다. 1회에 5전 내지 10전을 건다.²⁷⁾

이상에 의하면 콩던지기는 주사위처럼 콩에 숫자를 써 놓고 던져서 승패를 가르는 놀이이다. 흥미로운 것은 1회에 5전 내지 10전을 건다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를 통해 볼 때 콩던지기는 일종의 사행성 놀이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놀이의 주체는 불량 남녀 청년이었다. 공동 누에기르기는 20가구 정도를 한 단위로 해서 누에를 나누어 기른 뒤에, 누에의 성장 정도를 보아서 우수한 사람에게 상을 준다²⁸⁾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누에를 권장하기 위한 장려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풍어놀이란 선주와 어부들이 모여 주연을 베풀며 노래를 불러 풍어를 기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제사의식과도 맥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하와 같은 가사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1. 줄이줄이 열구신독에 옥백미로 술비저눗코 어내나독에서 술맛을볼고
후렴: 자아자아쫓네 에헤에헤에헤야요
2. 에야되야 에야되야 에야되야뚫다라라
어영도바다에 돈실네가잔다
3. 뱃님재아주맘 울네조아

27) 村山智順 편, 박전열 역(1992), p. 426.

28) 村山智順 편, 박전열 역(1992), p. 417.

조선여들도 도자원다하여왔네

4. 은전으로 굴마루눅코 지전으로 만당화피웠네²⁹⁾

위의 인용은 평원지방에 전해오는 풍어놀이의 가사이다. 일반적으로 풍어놀이는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 사이에 거행되었다. 그리고 이때는 마을 전체가 모여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즐겼다. 이것은 원래 바다의 신을 위로함으로 풍어와 함께 풍랑이 일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위의 가사 또한 '돈', '은전', '지전' 등, 풍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풍족한 결과에 대한 기대가 가득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인 남녀 및 일반의 놀이 상황

다음으로 성인 남녀 및 일반의 놀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석전, 종경도놀이, 조조잡기, 쥐불놀이, 꿩사냥, 씨름, 천렵, 복놀이, 화전놀이, 윷놀이 등이 행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여성의 놀이로는 그네와 널뛰기, 길쌈, 호박따기 등이 행해지고 있었으며, 일반으로 표기된 놀이로는 줄다리기와 경로회 등이 있었다. 석전은 『조선의 향토오락』에 의하면 도로나 혹은 강을 사이에 두고, 두 마을이 대치하여 돌맹이를 핏땃줄 등에 감아 던지면서 상대를 공격한다. 약한 쪽이 도망가면 뒤를 추격해 마을을 점령하는데, 패한 쪽은 다음 대전 때까지 이긴 쪽을 공손하게 대해야만 한다.³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석전은 역사가 매우 노래된 놀이로, 그것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수서(隋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마다 연초에는 패수(溟水)가에 모여 놀이를 하는데, 왕은 요여(腰輿)를 타고나가 우의(羽儀)를 나열해 놓고 구경한다. 놀이가 끝나면 왕이 의

29) 村山智順 편, 박전열 역(1992), p. 423.

30) 村山智順 편, 박전열 역(1992), p. 407 참조.

북을 물에 던지는데, 좌우로 두 편을 나누어 물과 돌을 서로 뿌리거나 던지고, 소리치며 쫓고 쫓기기를 두세 번 되풀이 하고 그만 둔다. 31)

인용에 의하면 매해 연초에는 패수가, 즉 강가에 모여 놀이를 하였다. 더욱이 당시의 놀이에는 왕이 임석(臨席)을 하였는데, 이 때 ‘돌을 서로 뿌리거나 던지고’ 쫓고 쫓기기를 두세 번 하였다고 한다. 물론 여기서 ‘돌을 서로 뿌리거나 던지’는 행위는 곧 석전을 의미한다. 이후 석전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와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의 역사서 외에 이색의 『목은집』 등 개인 문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석전이 군사제도에 편입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삼국사기』 권40(잡지 9) 직관(하) 무관조에는 ‘석투당(石投幢)³²⁾’이라는 기록이 보이며, 『고려사』 권81(지35) 병(1) 조에는 별호제반을 설치해 석투 등³³⁾의 특수군을 편성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에는 태조 3년(갑술) 4월 1일(경오)에 ‘돌 던지는 놀이를 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척석군(擲石軍)이라 명명하였다³⁴⁾’는 기록이 보인다. 이것들은 모두 석전이 단순한 놀이가 아닌 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이색의 『목은집』 제29권에는 <단오석전³⁵⁾>이라는 시가 실려 있는데, 본 시에

31) 국사편찬위원회, 『중국정사조선전역주』2, 국사편찬위원회, 1988, p. 135.

32) [원문] 四設幢。一曰弩幢二曰雲梯幢三曰衝幢四曰石投幢。無衿(사설당의 첫째는 노당, 둘째는 운제당, 셋째는 충당, 넷째는 석투당이다. 금장은 없다.) 원문 및 번역문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검색일: 2020년 4월 1일)

33) [원문] 別號諸班 神騎, 神步, 梗弓, 精弩, 石投, 大角, 鐵水, 剛弩, 跳盪, 射弓, 發火. (별호제반 신기, 신보, 경궁, 정노, 석투, 대각, 철수, 강노, 도탕, 사궁, 발화) 원문 및 번역문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검색일: 2020년 4월 1일)

34) [원문] 命募城中擲石戲者, 名擲石軍. 원문은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 검색일: 2020년 4월 1일)

35) [원문] 年年端午聚群頑。飛石相攻兩陣間。馬市川邊朝已集。僧齋寺北暮方還。忽然被逐輕如藥。屹爾當衝重似山。只爲朝廷求勇士。殘傷面目亦胡顏。(해마다 단오날엔 악마리 청년들 모여들어, 양 편으로 갈라서서 돌 날리며 싸우는데, 마시장 냇가에 아침부터 집결을 하였다가, 승재 지내는 절 북쪽에 저녁에야 돌아오네, 쫓길 직

의하면 해마다 단오날에는 청년들이 모여 석전을 즐겼다고 한다. 종경도³⁶⁾놀이는 실내놀이 중 하나로, 종경도(從卿圖)란 ‘벼슬살이하는 도표’라는 의미이다. 방법은 넓은 종이나 판에 품계와 종류에 따라 벼슬 이름을 써 놓고 주사위나 방망이처럼 생긴 것을 굴려서 나온 수에 따라 벼슬을 올리거나 혹은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성현의 『용재총화』(제10권)에는 본 놀이를 창안한 사람은 하륜³⁷⁾으로, 9품으로부터 1품에 이르기까지 관작의 차례가 있고, 주사의 육면에 덕(德)·재(才)·근(勤)·감(堪)·연(軟)·빈(貧) 등 6자를 써서 덕과 재면 올라가고, 연과 빈이면 그만두기를 마치 벼슬길과 같이 하였다.³⁸⁾고 기록되어 있다. 호박따기는 주로 순천 지방에서 정월에 행해지던 것으로, 놀이법은 손님과 주인으로 나뉘어 손님이 주인 쪽에 있는 사람을 자기편으로 데리고 가는 놀이이다.³⁹⁾ 조조잡기는 여러 명이 함께 하는 놀이로, 중국 삼국 시대 영웅의 이름을 써놓은 딱지를 차례로 집는다. 딱지 중 제갈공명의 딱지를 잡은 사람이 한 사람을 지명 해 조조를 잡아오라고 한다. 지명 받은 사람은 조조를 알아맞춰야만 하는데, 틀리면 벌을 받게 된다.⁴⁰⁾

이상과 같은 성인 남녀 및 일반의 놀이 중, 주목해야만 하는 것은 석전과 줄다리기 등과 같은 대동놀이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시 일

엔 산야에 깔린 약초처럼 흩어졌다가, 대치할 적엔 태산처럼 물러설 줄을 모르는데, 목적은 단지 조정이 용사를 구하는 것이거늘, 얼굴과 눈이 깨지다니 이는 또 무슨 체면인고) 원문 및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검색일: 2020년 4월 1일)

36) 종경도는 달리 ‘승정도’, ‘중정도’, ‘승경도’라고도 한다.

37) 하륜(河崙, 1347~1416)은 조선의 개국 당시 공을 세운 문신 중 한 사람으로, 『태조실록』을 찬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38) [원문] 河政丞崙作從政圖。自九品至一品。有官爵次第。輪木六面。書德才勤堪軟貪六字。德才而升。軟貪而罷。一如官途。 원문 및 번역문은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검색일: 2020년 4월 1일)

39) 村山智順 편, 박전열 역(1992), p. 414 참조.

40) 村山智順 편, 박전열 역(1992), p. 414 참조.

본은 식민지 조선을 철저하게 통제해 생활 속의 민속과 놀이까지도 금지와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석전의 경우는 마을 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함께 움직이는 대동놀이로, 언제든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일제는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에 1912년에 제정된 <경찰범처벌규칙(警察犯處罰規則)>(50조)에는 “石戰其ノ他危險ノ遊戯ヲ為シ若ハ為サシメ又ハ街路ニ於テ空氣銃吹矢ノ類ヲ弄ヒ若ハ弄ハシメタル者”⁴¹⁾라고 하여 석전 외에 위험한 놀이를 하거나 시키는 자, 또는 거리에서 공기총이나 활류를 가지고 놀거나 놀게 하는 자’는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초기부터 철저하게 규제하기 시작해 석전은 1910년대에 이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줄다리기 또한 농촌 및 전통놀이 진흥정책에 따라 1920년대에 일시적으로 활발히 개최되기도 하였으나 석전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운집해 ‘투쟁적인 면모로 폐해를 일으킨다’⁴²⁾는 왜곡된 시각으로 철저하게 규제해 1930년대 후반부터 거의 열리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향토오락』에 수록된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본서가 행정력에 의해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석전 등에 관한 기록이 보이는 것은 당시까지만 해도 그것이 성인 남녀나 일반의 놀이로서 전승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여성들의 놀이 중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은 첫째, 놀이 종목이 남성과 비교해 매우 적고, 둘째, 놀이의 성격 또한 노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먼저 놀이 종목의 경우, 일례로 가장 많은 종류의 남성 놀이를 기록한 대동 지방에는 평사냥, 팽이치기, 닭싸움, 석전, 고누, 복놀이, 천렵, 씨름, 조조잡기 등 총 9개 종목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반해 3종목으

41)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官報」(제470호), 朝鮮總督府印刷局, 1912년 3월 25일.

42) 김난주 외, 「일제강점기 향토오락 진흥정책과 민속놀이의 전개 양상」, 『민속놀이의 문화정책과 변모양상』, 단국대학교 출판부, 2011. p.31.

로 비교적 많은 여성의 놀이를 기록한 대동, 순천, 맹산, 양덕, 평원 등의 지방에는 그네, 널뛰기, 길쌈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몇 안 되는 놀이 중 일부는 여성들의 노동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오락과 노동의 경계에 존재하는 일종의 노동형 놀이였다. 대표적인 것이 길쌈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통사회에서는 마을의 여성들이 공동길쌈을 조직해 여러 집을 차례로 돌며 길쌈을 하였다. 그리고 이 공동길쌈이 행해지는 기간 동안에는 노래와 음식 등을 즐기며 흥겹게 놀았다. 김종직의 <회소곡(會蘇曲)>에는 다음과 같이 길쌈의 전경이 묘사되어 있다.

西風吹廣庭，月滿華屋，王姬壓坐理纈車，六部六兒多如簇。

爾筥既盈我筐空，釀酒聊諭笑相諠。

一婦嘆千室勸，坐令四方勤杼柚，嘉俳縱失閨中儀，猶勝跋河爭嗚嗚⁴³⁾

길쌈을 하며 노래와 풍성한 음식을 즐긴 것은 노동의 강도가 강한 만큼 피로를 풀기 위한 것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통사회에서 여성은 양잠이나 길쌈 등,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가계를 위해 노동을 아끼지 않았다. 김명호의 「朝鮮의 農村女性」에 ‘農村女性이 農村의 男性보다 적어도 二倍는 한다고해도 過言이 안입니다⁴⁴⁾’라고 표현될 정도로 여성들의 노동은 강도 높은 것이었다. 즉, 길쌈은 여성들의 노동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일종의 노동형 놀이로, 여성들의 가계 노동과 놀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43) [번역서풍이 넓은 뜰에 불어오고, 밝은 달은 화옥에 가득한데, 왕녀가 뒷자리에 앉아 물레를 돌리니, 육부의 여자들 떨기처럼 모여들었네. 네 바꾸닌 다 차고 내 광우린 비었구나, 술잔 들고 아우하며 웃고 서로 놀리네. 한 여자가 탄식하매 천 집에서 권하여, 앉아서 사방이 베짜기를 근면토록, 가비가 비록 규중의 의범은 잃었지만, 발하(줄다리기) 놀이로 왁자지껄 싸움보단 나았네. 원문 및 번역문은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검색일: 2019년 5월 30일)

44) 김명호, 「朝鮮의 農村女性」, 『신여성』 1월, 개벽사, 1926, p. 58.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 평안남도를 중심으로 살핀 이상과 같은 여성 놀이의 상황은 다른 지역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하는 평안남도를 제외 한 타 지역의 놀이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4개도 전통놀이 현황

놀이 주체/대상	황해도 (놀이 수)	평북	함남	함북
어린이	각시놀이, 공기, 고사리따기 외(29)	풀놀이, 풀겨루기, 처용놀이, 각시놀이 외(25)	소꿉놀이, 각시놀이, 공기 외(15)	돌치(치)기 외(18)
소년/소녀	달집태우기 외(3)	돈치기, 석진, 조조잡기 외(6)	등놀이(1)	햇불놀이(1)
男	활쏘기, 씨름, 종경도놀이 외(10)	사자놀이, 씨름, 줄다리기, 천렵 외(9)	장기, 씨름, 종경도놀이, 천렵, 활쏘기 외(6)	팔씨름, 노루사냥 외(12)
女	그네, 널뛰기, 길쌈, 굿, 농공제, 성황신제(6)	그네, 길쌈, 널뛰기(3)	그네, 널뛰기(2)	고사리따기, 그네, 널뛰기, 달맞이, 옷점, 산옷, 가막달기, 구러달기날(8)
일반	연등, 화전놀이, 달맞이 외(27)	호미씻이, 옷놀이, 쥐불놀이 외(15)	수투, 사자놀이, 옷놀이 외(19)	농악, 다리밟기, 경로회 외(14)
유림	시회, 풍월패 외(4)	시회(1)	백일장, 시회(2)	백일장, 산놀이, 시회(3)
마을공동	동제 외(2)	파결의(1)	없음(0)	산천제, 동제, 산제, 국사당제(4)
기타 ⁴⁵⁾	오광대놀이, 줄타기, 박첨지놀이(3)	박첨지놀이(1)	목동계, 조조잡기, 탈춤(3)	없음(0)

*村山智順 편, 박진열 역, 『朝鮮의 郷土娛樂』, 집문당, 1992, p. 317~501에서 작성.

이상은 황해도, 평안북도, 함경남북도의 총 64개 지방의 놀이 상황을

45) 기타는 예인, 광대, 흥행단원, 하류층, 어부, 뱃사람, 농민, 한학자, 목동, 불교신도, 중노인 등으로 표기된 경우이다.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 중 가장 많은 놀이가 기록된 것은 황해도로 전체 85개가 올라와 있다. 반면 가장 적은 수의 놀이가 기록된 것은 함경남도로 48개의 놀이가 수록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위의 표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린이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남성의 놀이가 다양한 것에 반해 여성이 즐길 수 있는 놀이는 결코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례로 가장 많은 놀이가 기록된 황해도의 경우 어린이로 기록된 놀이는 총 23개이다. 그런데 그중 특별히 여자 어린이로 표기된 것은 각시놀이와 고사리따기, 널뛰기의 단 3종목에 불과하다. 물론 어린이로 표기된 놀이 중 솜바꼭질처럼 남녀 어린이 공용의 놀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말타기, 진치기처럼 남자 어린이 위주의 놀이 또한 상당해 여전히 여자 어린이를 위한 놀이가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여자 어린이 놀이로 기록된 각시놀이는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모습을 본 뜬 놀이이며, 고사리따기는 일종의 노동형 놀이었다.

또한 성인 여성의 경우, 각 도별로 기록된 공통적 놀이는 대략 3~4개 정도이다. 평안남도에서 보았던 그네, 널뛰기, 길쌈 등이 그것인데, 이 외에 황해도에는 굿, 농공제, 성황신제, 함경북도에는 고사리따기 등이 기록되어 있다. 고사리따기는 길쌈처럼 마을 단위의 단체 놀이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여성의 노동과 관계된 놀이이다. 놀이법은 '산이나 들판에서 나는 고사리를 찾아서 캐며 즐긴다'⁴⁶⁾라고 기록되어 있다. 산이나 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고사리는 부식 중의 하나로 그것을 캐는 행위는 놀이이기보다는 노동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놀이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황해도의 경우, 굿(재령)과 농공제(서흥), 성황신제(안악)가 여성의 놀이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농공제란 시제(時祭)를 5대조 조상께 올리고 단군에게 햇곡식을 바치는 제사이다. 전

46) 村山智順 편, 박전열 역(1992), p. 495.

통사회에서는 농사가 주를 이루었던 만큼 수확이 많은 10월 중 길일을 택하여 마을 단위로 농공제를 올렸다. 성황신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서낭신제라고도 불리는 성황신제는 마을의 안녕과 평안, 풍농, 풍어 등을 기원하기 위해 올리는 동제(洞祭)로 지방에 따라서는 1년에 여러 차례 제사를 올리기도 하였다. 게다가 농공제나 성황신제는 신성한 제사로 제주(祭主)는 대부분 마을의 원로로 존경받은 남성이 맡았다. 그렇기 때문에 농공제나 성황신제를 놀이로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그것의 주체를 ‘여자’로 기록한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오히려 마을 공동의 행사에서 제사를 위한 음식 등의 제반 준비를 여성들이 담당하였고 그로 인해 여성들의 참여도가 높았다면 그것은 놀이가 아니라 노동력을 동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부 제사를 마친 후 음복을 하며 여흥을 즐길 수는 있으나 이것 또한 마을 공동의 행사인 만큼 여성의 놀이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서흥이나 안악에서 왜 농공제와 성황신제를 여성의 놀이로 분류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그만큼 여성을 위한 놀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서흥과 안악은 모두 농공제와 성황신제 이외에 여자로 분류된 놀이는 널뛰기와 그네가 전부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표기된 놀이에는 옷놀이, 달맞이, 꽃구경, 경로회, 복놀이, 조조잡기, 종경도놀이, 화전놀이, 천렵, 박첨지놀이 등이 있다. 옷놀이나 조조잡기, 종경도놀이, 천렵, 복놀이 등은 지방에 따라 남성으로 표기된 경우도 있어 일부 중복된다. 일반적으로 표기된 놀이 중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박첨지놀이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박첨지놀이는 풍물, 버나, 망재주, 줄타기, 가면극과 함께 남사당패의 중요 연행 종목 중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박첨지놀음은 보통 전문 예인들에 의해 공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용강 지방에는 박첨지놀이가 일반적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것은 전문인이 아닌 일반인들에 의해 박첨지놀이가 연행되

있음을 의미하는데, 중화지방의 경우 광대놀이가 장인으로 기록된 것과
는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IV. 나오며

이상으로 일제강점기 총독부의 전통놀이 조사/진흥 배경과 무라야
마 지준의 『조선의 향토오락』에 관해 재고해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바
탕으로 평안남도 지역의 전통놀이 상황 또한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 총독부는 붕괴되어 가는 조선 농촌을 살린다는 미명 하
에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리고 그것의 일환으로 전통놀이 진
흥정책을 시행하였는데, 그에 앞서 조선의 민속 내지는 전통놀이에 관한
조사 작업을 진행하였다. 1941년 조선총독부 조사자료집 중 한권으로 출
간된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의 향토오락』은 이상과 같은 전통놀이 조사
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의 향토오락』에는 전국 13개 도(道)의 총 6,400개에 달하는 놀
이명과 1,300여 종에 달하는 놀이의 설명이 기술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평양을 포함한 평안남도를 중심으로 전통놀이 상황에 관해 살펴보
았다. 평안남도에는 평양, 진남포, 대동 등, 16개 지방이 포함되었다.

『조선의 향토오락』을 바탕으로 평안남도의 전통놀이 상황을 분석한
결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당시 가장 많은 놀
이를 즐긴 것은 어린이>성인 남성>성인 여성의 순이었다. 어린이 놀이
중, 지방 별로 분포도가 높은 것은 연날리기와 팽이치기, 숨바꼭질, 썰매
타기, 풀겨루기, 진치기, 버들피리, 공기 등이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고
누나 조조잡기, 참봉놀이 등 오늘날 잊힌 놀이들 또한 당시 행해지고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둘째, 성인 남성과 여성의 놀이를 살핀 결

과, 남성에 비해 여성의 놀이가 수적으로 매우 적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놀이에는 놀이와 노동의 경계에 있는 노동형 놀이 또한 행해지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길쌈이다. 남성의 놀이 중 눈에 띄는 것은 석전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일본은 정치뿐만 아니라 생활과 민속, 놀이까지도 철저하게 통제하였다. 놀이에서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른바 대동놀이를 철저하게 관리하였는데, 결과 석전은 1910년대에, 줄다리기는 1930년대 말부터 거의 행해지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6년에 자료수집이 시작된 『조선의 향토오락』에 석전 등이 기록된 것은 직접 행해지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놀이로서 명맥이 유지되고 있었음은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놀이의 주체로서 어린이나 성인 남녀 등과는 별도로 유림이 따로 표기 되어 있어 전통사회의 신분 등에 관한 시각이 잔존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와 함께 본 연구를 통해 『조선의 향토오락』의 자료적 가치를 재확인한 것은 의외의 성과이며 또한 본 연구가 지니는 또 하나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의 향토오락』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위한 조사 자료로 직접조사가 아닌 행정조사에 의해 작성된 자료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실제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등, 불충분한 부분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국에서 행해지던 놀이를 전체적으로 나열해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전통사회에서 행해지던 놀이까지도 조망할 수 있게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일부 놀이에 설명을 추가해 현재 전승이 단절되었거나 혹은 잊힌 놀이의 방식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풍어놀이의 노랫말 수록이다. 풍어놀이는 그 해의 풍어와 어부들의 안전을 위해 행해지던 일종의 제사의식이었다. 『조선의 향토오락』에는 경기 지역의 풍어제와 수신제, 제주의 용왕제 등, 비슷한 성격의 제사의식들이 수록되

어 있다. 그 중, 특히 평안남도의 풍어놀이에는 상기한 노랫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놀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생활과 신앙, 풍속 등 민속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놀이 관련 종합자료로서 『조선의 향토오락』의 가치를 재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그리고 덧붙여서 전통놀이의 상황 파악을 통해 당시의 사회적 일 단면을 도출해 낸 것 또한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평안남도를 중심으로 전통놀이 상황을 분석한 결과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여성들의 놀이 상황이었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평안남도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자 어린이 및 성인 여성의 놀이 수는 남자 어린이 및 성인 남성에 비해 매우 적은 편에 속한다. 게다가 여성들의 놀이에는 노동형 놀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평양이 포함된 평안남도는 경성이 포함된 경기 지역과 함께 문화와 교육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새로운 교육의 유입과 저변확대가 빠르게 진행되어 신교육을 받은 인사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신여성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평양 출신의 문사(文士) 주요한이 1932년 『신여성』(11월호)에 발표한 「時代意識으로 본 내 故郷 젊은 女性」에 ‘平壤은 文化程度로 보아서는 京城等地보다 한층떠러질는지모르지만은 新女性들의 活動이라는데 잇서서는 決코 서울에 지지아니합니다’라고 기술할 정도였다. 또한 실제로 황에스더, 권기옥 등 평양 출신의 인사들이 당시 각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특히 황에스더는 교육자로서 1920년대 후반부터 농촌계몽사업과 여성계몽사업에 힘을 기울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는 상관없이 전통놀이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통사회의 습관과 정서가 통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다른 지역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전통사회 속 여성의 지위와 상황이 놀이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전통놀이를 주제로 한 기초연구이면서 동시에 광의의 지

역연구로서 해당 지역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타 지역 연구는 금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20년 5월 9일

논문 심사일 : 2020년 6월 6일

게재 확정일 : 2020년 6월 13일

참고문헌

『동아일보』 1928년 3월 8일, 1934년 6월 1일, 1938년 7월 28일

국사편찬위원회, 『중국정사조선전역주』 1-2, 국사편찬위원회, 1987.

김난주 외, 「일제강점기 향토오락 진흥정책과 민속놀이의 전개 양상」, 『민속놀이의 문화정책과 변모양상』, 단국대학교 출판부, 2011.

김명호, 「朝鮮의 農村女性」, 『新女性』 1월, 개벽사, 1926.

김희영,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인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_____,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인식』, 민속원, 201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편, 『조선의 근대』, 채륜, 2012.

_____, 『민속놀이관련자료집 잡지편』, 민속원, 2011.

村山智順 편, 박전열 역, 『朝鮮의 郷土娛樂』, 집문당, 1992.

박전열, 「『朝鮮의 郷土娛樂』에 대하여」, 『한국민속놀이의 종합적연구』 22, 한국민속학회, 1992.

서종원, 「식민지 시기 아동놀이의 실제와 특징」, 『실천민속학연구』 20, 실천민속학회, 2012.

서종원, 『한국의 근대 놀이문화』, 채륜, 2007.

조선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편, 『문화유산』 1권(영인), 연문사, 2000.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官報」 제470호, 朝鮮總督府印刷局, 1912년 3월 25일.

지수걸, 「1932~35년간의 조선농촌진흥운동」, 『한국사연구』 46, 한국사연구회, 1984.

_____, 「일제의 군국주의파시즘과 조선농촌진흥운동」, 『역사비평』 5월, 역사비평사, 199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웅진출판, 1991.

朝倉敏生, 「村山智順の謎」, 『民博通信』 79, 国立民族学博物館, 1997.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http://sillok.history.go.kr> (검색일: 2020년 4월 1일)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검색일: 2019년 5월 30일)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검색일: 2020년 4월 1일)

Abstract

Study of the Situations of the Traditional Plays in
the Pyeongannam-do Region Viewed through
Chijun Murayama's
Indigenous Entertainment in Joseon

Taequ Park

This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of the traditional play research/promo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Chijun Murayama's *Indigenous Entertainment in Joseon*.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ituations of the traditional plays in the Pyeongannam-do region based on that.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developed a movement for the promotion of the agricultural areas of Joseon and policy on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plays. Also, before that, it surveyed the traditional plays of Joseon. Chijun Murayama's *Indigenous Entertainment in Joseon* can be said to be the result of the project for the survey on the traditional play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digenous Entertainment in Joseon* describes the names of a total of 6,400 plays of 13 provinces in nationwide Joseon and about 1,300 kinds of play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ituations of the traditional plays, focusing on Pyeongannam-do including Pyeongyang. As a result of an analysis of the situations of the traditional plays of Pyeongannam-do based on *Indigenous Entertainment in Joseon*, children

enjoyed the most plays at the time, followed by men and women. As a result of an examination of the plays of men and women, the plays of women were much fewer than those of men. Also, in women's plays, labor plays were done, which were in the boundary between play and labor. Of men's plays, Seokjeon (a mock fight with stone missiles) is remarkabl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Japan thoroughly controlled folk and play as well as politics. In plays, it thoroughly controlled Daedong Nori (festival of performers and audience), in particular, and as a result, Seokjeon had hardly been played since the 1910s while a Tug-of-War had hardly been played since the end of the 1930s. Nevertheless, the fact that plays like Seokjeon, etc. were recorded in *Indegenous Entertainment in Joseon* shows that its existence was maintained as a play.

This study is a baseline study with traditional play as a topic and at the same time, an area study in a broad meaning. Thus, it is expected that it would help understand the area and culture. A study of other areas not dealt in this study would be left as a task for the future.

Key words

Keyword: Pyeongannam-do, Traditional play, Chijun Murayama, *Indegenous Entertainment in Joseon*